

國際工業所有權界 움직임 부산

美國 · 日本 · 소련 · GATT 등

美 國

3년內 심사개시 主張

美國은 特許權의 許與와 流通을 촉진시키기 위해 WIPO가 현재 검토중인 「特許制度調和條約」에 심사를 3년내에 개시하고, 이의신청은 특허성립후로 하는 것등 2개항의 조문 삽입을 제안했다고 日本經濟가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EPO 등에서는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허보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日 本

知的財産權研究所 설립

日本 통상성은 特許등 각국의 지적소유권제도의 비교연구와 기업간의 특허 분쟁사례의 수집 등을 추진할 가칭 지적재산권연구소를 8월쯤 설립할 예정이다.

이 연구소는 관·민합동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앞으로 △각국의 지적소유권관련 자료수집과 법제도의 비교연구 △국제적인 기업간의 분쟁사례분석

△일본에서의 기업정보보호의 실태조사등 주로 국내법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이론연구 등도 할 예정이다.

소 련

特許審判所 설치

소련은 최근 특허법안을 성안하여 이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법안에는 특허심판소를 설치하여 기업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특허권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외에도 기술개발투자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3년간 면세혜택을 주며, 발명의 장려를 위해 투자은행을 설립하며, 발명의 실용화를 위한 특허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부르키나 파소

PCT에 가입

부르키나 파소 정부가 지난해 12월 21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을 위한 기탁서를 WIPO

에 제출함으로써 올 3월 21일부터 PCT조약이 발효된다.

이로써 PCT가입국은 모두 41개국 이 된다.

라이베리아

WIPO 가입

라이베리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가입을 위한 기탁서를 제출함으로써 올 3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써 WIPO가입국은 1백 23개국 이 된다.

GATT

美관세법 수정요구

GATT 분쟁처리소위원회는 1월 20일 미국정부가 미국기업의 특허등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미관세법 337조는 GATT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리고, 미국이 관련법규를 GATT규정에 맞게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2월 8일 이사회에서도 이를 확인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